

부산불교계 '청정화합 모임' 만든다

범종단-단체 합심 환경·복지운동 벌여

정각·혜총스님 공동대표... 11월부터 본격 활동

국내 최고의 불교 도시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부산 불교연합회가 불교환경 분야 등 모든 사회 제반 문제에 광범위하게 대처하는 시민운동모임을 구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17일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인건 복지 통일 환경 분야 등 모든 사회 제반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시민운동모임으로 '청정·화합의 사회를 가꾸는 모임(이하 청정화합모임)'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국가와 지역 사회의 문제에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취지의 이 모임은 비관과 대안제시의 기능을 함께 갖출 전망이다. 우선 참여자시민단체 상임공동대표, 부산인권센터 상임대표 등을 맡아 부산시민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각스님을 상임공동대표로 추대해 놓은 상태다. 또한 부산불교복지협의회 회장 혜총스님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각계각층의 전문인을 대상으로 운영위원 섭외에 들어갔다. 빠르면 한 달 내에 조직 준비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청정화합모임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인간과 자연의 일치를 위한 환경운동, 민족의

화합을 위한 통일운동, 증생의 안락 수호를 위한 윤동, 인권신장과 교권 수호를 위한 운동, 제반 활동 등 사회적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각 분야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분야간의 연계에서 오는 효과도 심본 활용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청정화합모임이 급격히 변하는 세태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은 하되, 조직은 부산불교연합회와는 별도로 분리시켜 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상임대표를 맡은 정각스님은 "청정화합모임을 계기로 불교계의 결집된 힘을 대사회적으로 드러내어 모두

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활동 중인 시민단체나 다종교 시민단체 등과의 활발한 연계는 필수라는데 공명된 의견.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적극적인 시민운동을 펼치는 타종교 시민운동단체와의 교류는 정체되었던 부산불교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며 대사회적 운동에서 불교계의 위상을 높여주는 자구제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부산불교연합회 성재도 사무국장은 "청정화합모임은 부처님의 진리가 살아 있는 세상, 즉 불국토를 만들겠다는 부산불자들의 오랜 원력을 실천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스님과 모든 불자들이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부산시민운동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의정부서 가두시위

의정부시불교사모연합회,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불교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북한산 관통도로 저

지외 대안노선 건설 및 사할수행환경을 위해 '불교대책위' (상임공동대표 지섭스님)는 24일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역까지 도봉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봉선사 주지 일면, 조계종 사회부총장 양산을 비롯한 1

백여 불자들은 이날 시위에서 결의문을 통해 도봉산 관통 서울의곡고속도로의 건설 중지와 의정부시외곽 대안노선 채택, 불교계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종교 NGO 네트워크' 11월 5일 출범

'맑은 종교인상' 제정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기독교사회연대는 11월 5일 오후 2시 명동 전진상 교육관에서 '개혁을 위한 종교NGO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종교자정운동에 나선다.

발족식과 기념식포지움을 겸한 이날 행사에서 종교NGO네트워크는 '맑은 종교를 위한 종교인 경제윤리 현장'과 향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이 시대 한국종교가 실천해야 할 경제윤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종교NGO네트워크는 또한 각 종교

별로 5인씩 15명을 '맑은 종교인상' 제정위원으로 위촉, 12월 중순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상은 종교재정의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고 청정한 수행태도를 보여준, 종교별로 각 1인씩 3명의 종교인들에게 수여된다.

종교NGO네트워크는 한국종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재정의 투명하고 올바른 사용'이라는 판단 아래 올 3월부터 준비위원을 꾸려 투명한 종교재정, 올바른 경제윤리 정립을 위해 워크숍과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정웅기 재가연대 시민사회국장은 "90년대 이후 한국종교는 '종교의 상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영혼주식회사'라는 딱지가 붙을 정도로 사

회적인 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며 "올바른 종교를 위한 개혁운동이 종교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02)725-6231

김재경 기자

BBS도 휴대폰 포교

불교방송(사장 김구철)이 불교인론계에서 두번째로 011 등 5대 통신사 휴대폰을 통해 부처님말씀을 서비스한다. 불교방송은 '1인 1대 휴대폰 소유 시대'를 맞아 부처님말씀을 휴대폰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전송을 현재 서비스 중이며 향후 유료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자서비스는 법구경 숫타니파이다 아함경 등이 내용이며 음성서비스는 기존 녹음된 부처님말씀 중에서 전송한다. 불교방송은 또한 향후 유료 서비스 회원에 대상으로 불화 불교캐릭터 다운로드, 불교만화, 게임 등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서비스신청 www.bbsfm.com 한편 현대불교신문사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011, 016, 017 등 5대 통신사 휴대폰을 통해 부처님말씀과 불교뉴스, 사찰정보, 퀴즈 등 다양한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영숙 기자

고침 지난호(340호) 2면의 국목 담 스님 관련 기사중 '불교종단 때 조계종 총정...'을 '태고종 총정...'으로, 23면 '동일대지 10억여원' 글의 제목과 기사 내용중 '10억여원'을 '1억8백40여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천안 성불사 돈보기 선물

1천5백여명 받아

눈이 어두워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돈보기를 선물하는 행사가 26일 충남 천안 태조산 성불사(주지 원경)에서 열렸다. 지역 노인들에게 '돈보기 보시'를 하고 있는 성불사가 이날 천안 동면에 살고 있는 140여 노인들에게 돈보기를 선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성불사의 돈보기 보시는 지난 1월에 시작한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1천 5백여 노인들이 혜택을 입었다. 성불사는 앞으로 천안시의 25개 읍·면·동 2천 5백여 노인들에게 안경을 보시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노인들에게 제공할 안경은 신도들의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 돈보기는 신앙당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심씨(성불사 신도회 감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원경스님은 "안경을 받는 노인들도 좋아하지만, 발품을 싣는 신도들이 너무 기뻐한다"며 "노인들 사이에 호응이 대단해 타종교 노인들도 상당수 성불사를 방문해 안경을 받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용주사 주지 선거관련 법원 판결 '강압분위기속 선출은 무효' "또 사회법 의존"

종단 내부의 문제를 사회법에 의지해 해결하려고 하는 관행이 또다시 재연됐다. 지난해 4월 수원 용주사 주지선거와 관련 주지 후보였던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낸 주지임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 민사합의 7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23일 "강압적 분위기속에서 치러진 주지 후보자 선거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단내부의 결정이라도 현저히 정의에 어긋날 경우 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주지 후보자가 선거직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선거당일 경쟁후보로 출마했던

원고에 대한 집단폭행이 발생하는 등 강압적 분위기가 조성돼 공정한 투표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종단구성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인 면만 보고 판단했다"며 "당시 사건은 후보였던 스님이 총무원장 스님을 비난하자 후보부 스님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주지선거와 무관한 일이다"고 밝혔다.

교계의 한 불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종단문제를 사회법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스님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종단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에 개최된 용주사 신중총회에서는 선거인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주지 스님이 69표, 소송을 제기한 스님이 9표를 얻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유 없다'며 기각된 바 있다.

김원우 기자

24층 주상복합건물 건축 놓고 시공사, 조계사에 '협상' 공문

조계사 인근 24층 주상복합건물 건축문제의 관련, 시공주인 넥스트 이미지는 23일 조계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면 사설) 넥스트 이미지는 공문에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손해는 국가 또는 규모축소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를 얻는 측에서 당사에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는 본 사업진행을 통해 불사에도 참여하고자 하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하자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한편 조계사 측은 26일 빌딩 시공자인 한라건설 배영환 이사를 만나 "조계사는 근본적으로 이 빌딩이 들어서지는 안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배 이사는 "조계사와 넥스트 이미지가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며 문제해결이 안될 경우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명우 기자

승가대 안암학사 '고시원 임대' 결의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임대계약이 다시 이뤄진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22일 "이번 재계약에서는 임대목적과 사용 용을 고시원으로 명확히 하고, 임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며, 연체 시 연 18%의 이자 환수와 월 임대료 2개월 연체시 해지, 계약 종료 후 시설물 무상양도, 보험가입, 1층 식당(110평) 개문사에서 사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립학교관리위는 "원안대로 재계약할 것"을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도약주세요

급성백혈병 앓는 불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정신배(37·사진) 불자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매우고 있다. 한 가족의 가장이기도 한 그가 이 병을 앓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아들 정인철 군이 뇌종양으로 죽게 되자, 골수성백혈병이 급성으로 전환됐다. 다행히 정 씨는 그의 친형과 골수 조직이 일치해 골수를 이식할 수 있다는 검진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오랜 투병생활과 아들에게 들



어간 의료비로 이미 5천 여 만원의 빚이 있을 정도로 가계가 어렵다. 골수성 백혈병이 급성으로 되기 전까지도 정 씨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 보덕사를 자주 찾으며 보살행을 멈추지 않았다. 정 씨는 뇌종양으로 죽은 아들의 장기를 기증, 5명의 생명을 살린 것도 보살행이 몸에 밴 탓이다. 도울 분은 생명나눔의 후원제자를 이용하면 된다. 농협 053-01-243778 문의 (02) 734-8050 오종욱 기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개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예)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 334-9490, 334-9491
야간 : (031) 706-3060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명당 육기(六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라고 하며,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범종과 왕관을 떠받치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身將)이 항상 수호해 줌으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혈장(穴場)명당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가격 : 1호 10만원, 2호 20만원, 3호 집터 묘지 납골묘 전용 육기방 3천 하우 25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 ※ 범접의 힘 ※**
1. 모여들게 하는 힘
 2. 재산을 물고 들어오는 힘
 3. 건강하게 자라는 힘
 4. 부지런한 힘
 5. 단결하는 힘
 6. 정직한 힘
 7. 지키는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명당육기방은 범접과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명당육기방을 사용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하고 돈이 많이 온다고들 하며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육기방은 묘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 * 범접들은 좋은 명당에만 집을 짓고 삽니다
- 말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의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죽느냐 사느냐하는 속사정 가운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필요 합니다.**
1.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리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화가 겹쳐지는 분
 5.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
 6. 결혼을 앞두신 분
 7. 수행승을 둔 부모님께 권장하고 싶습니다
- 주지스님 친견 후에 구입하십시오.**
- (주) 명당 육기(氣)방 ☎ 051) 865-9933, 864-7878
일본지사(불교용품전문점)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